

노스님 의료지원·연금지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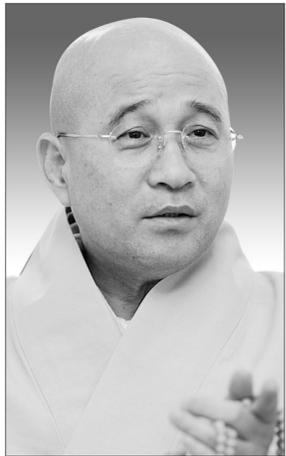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의 승가복지 제도를 완벽하고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지난 1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는 제33대 집행부의 11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총무원에서는 일정 기준에 도달한 노스님들에게 △승가복지관(주석처) 마련 △의료 지원 △수행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은 승가복지 정책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우선 노스님들을 위한 승가복지관을 수도권에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행연금 지급과 의료지원 등 노스님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스님들의 주저하는 교구본사별로 도량이나 시설을 지정한다는

‘11대 핵심과제’를 말한다

⑥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1대 핵심과제는 승가교육제도 개선, 사회갈등 해소, 한국불교 세계화 등 종단의 각종 현안을 말라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핵심과제 각각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영담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주경스님
강릉 성원사 회주

“수도권 승가복지관 마련 지역별 협력병원도 지정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 승려사유재산 활용 검토

방침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 ‘승가복지관 시범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지원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거나, 지역별로 협력병원을 종단에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국가의 각종 의료나 복지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학인 동국대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활용할 계획이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스님들이 몸이 아파도 마땅히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것이 종단의 현실”이라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연금 지급도 종단 차원에서 추진한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노스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행연금을 지급해 노스님들이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담스님은 “수행연금은 지급 대상과 액수 등 기준을 마련하

여, 은퇴하면 최소한의 수행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승가복지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가 숙제”라면서 “승려사유재산 종단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은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종단과 교구본사가 일부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승가복지의 대상이 되는 스님들은 연령별·승남별·수행형태별로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총무원 입장이다.

11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와 관련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스님은 “총무원에서 좋은 정책을 착안했다”면서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주경스님은 “승가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기 위해서는 자금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종단·본사·말사·개인이 기금 조성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경스님은 “교구본사 단위에 노스님들을 위한 수행관을 설립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학교인 동국대에서 설립한 ‘일산병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경스님은 나아가 노스님뿐 아니라 스님과 불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단과 병원이 함께 고민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의 우선 올해 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오는 2012년부터 승가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단에 등록(2008년12월 기준)된 스님 가운데 65세 이상~70세 미만은 728명이다. 70세 이상은 975명이다. 따라서 60대 중반 이상의 노스님은 1703명이다.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스님은 “그동안 스님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33대 집행부가 마련한 이번 승가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수행 풍토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주경스님은 “11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만큼 종단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과 제33대 집행부가 제시한 ‘종단발전 4개년 계획’도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불교중흥의 큰 원력을 성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승가복지의 필요성은 역대 총무원장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노후보장이 미비(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종단 차원에서 노후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설사당을 창건 또는 소유

“진작 추진했어야 할 일 동국대병원도 최대 활용 교구단위 ‘수행관’ 설립 본·말사 기금조성 필수

하거나, 사유재산을 마련하는 폐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은 승가공동체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종단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과제도 있다. 승가복지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승가복지의 취지가 수행과 전법을 위한 것이라면, 평생 수행·전법에 전념한 스님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승가복지 대상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규정을 만드는 것이 숙제이다. 또한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행·전법을 위한 승가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종단 재정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역대 총무원 집행부가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까닭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성수 기자



아이티 지원이 발생하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이티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축사는 신도들이 모은 800만원과 주지 유방스님의 사형사제들이 모금한 200만원을 지난 18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이진호 동국대병원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천축사 주지 유방스님, 중앙총회의원 승연스님, 광월회 동국대 병원 간호부장.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진참사 아이티에 자비의 손길을!

- 성금모금 명단 (무순)
- 단 체 △다인사 70만원 △전통 불교문화원 30만원 △삼불사 50만원 △승려사 30만원 △부산단 덕육원 30만원 △포항선사 100만원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69만5000원 △기피사 20만원 △다음카페 석가모니불 77만1000원 △강자원학성회 10만1790원 △약수사 54만8670원 △동국대 일산병원 686만2080원 △금화사일초 100만원 △천축사유방사형사제 200만원 △관음정사정담스님 50만원 △천축사 600만원
- 개인 △김영준 2만원 △최옥화 10만원 △정순희 2만원
- △묘침스님 10만원 △이지현,영창원 6만원 △서린지유 3만5000원 △천미순 10만원 △안희찬 5만원 △조기형 2만원 △조계종반야 30만원 △이건주 3만원 △박상명 2만원 △최정석 5만원 △김정숙 2만원 △시파영 10만원 △김상규 20만원 △이금희 5만원 △강순화 5만원 △변일란 10만원 △정송자 10만원 △홍종미 20만원 △안영선 5만원 △이미경 3만원 △안진성 1만원 △안수현 1만원 △성불사신도 50만원 △허은진 3만원 △하지현 3만원 △이은주 5만원
- 2월11일~2월18일 오후4시 현재 기간합계 : 2521만3540원 누적액 : 5억4411만9730원
- 자비나눔 계좌 :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농협 053-01-247901 (예금주: 불교신문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
- 문 의 : 아름다운동행(737-9595), 불교신문사(730-4488)

조계종 정무팀 문화재팀 신설

총무원 ‘총책집행 효율성 제고’ 기대

조계종 총무원에 정무팀과 문화재팀이 신설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무팀장에 윤효원 행정관, 문화재팀장에 심주완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새로 만들어진 팀의 조직을 확정했다. 정무팀과 문화재팀은 지난 1월 총무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됐다. 불교문화재 관리 및 대정부 관계 개선 등 종단의 주된 업무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부각시킨다는 취지로, 총책 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실 산하의 정무팀은 정부 및 국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꾸려졌다. △종단 정부 정책 △정부 예산 및 국고 지원 △국가법령 및 제도 개선 △정부와 국회 정책 모니터링

△대정부 협의 및 네트워크 △정부 인명 관리 △공직자 종교편향 대응 지원 △정부 의견에 주력한다. 특히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구역 해제, 문화재구역임장료 문제 등 정부와의 협의로 풀어야 할 핵심 현안에 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화부 산하의 문화재팀은 기존 문화팀이 맡고 있던 문화재 관련 총무를 전담한다. △성보문화재 정책개발 및 홍보 △성보문화재 관리 △성보보존위원회 운영관리 △문화재, 전통사찰, 문화재보유사찰 지정 지원 및 불사신의 △불교중앙박물관 및 불교문화재연구소 지원 감독 △북한문화재 교류 협력 △문화재 보유사찰 관리 등과 같은 일을 다룬다.

장영성 기자 tuel@ibulgyo.com

팔만대장경을 모신 민족의 성지 범보종찰 해인사

해인사승가대학 입학 모집 안내

불기2554년 해인사승가대학 개설 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선어록강독 I, 선종사, 조계종의 이해, 졸업논문, 외국어(영어)	선어록강독 II, 졸업논문
3학년	대승기신론 강독, 능엄경의 이해, 불교총론 I, 한국불교사, 정토사상의 이해, 불전의식 I, 문화연습 V,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법화경 강독, 열반경의 이해, 불교총론 II, 유식사상의 이해, 불교문화, 불전의식 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2학년	반야경의 이해(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팔천송반야경), 대승불교 개설, 중국불교사, 서양철학 I, 문학연습 I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화엄경의 이해, 화엄사상사, 중관사상의 이해, 동양사상사 II, 문학연습 IV,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학년	불교적 인간 I, 초기불교의 이해, 아비달마의 이해, 서양철학 I, 문학연습 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교적 인간 II, 율장의 이해, 인도불교사, 동양사상사 I, 문학연습 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집대상

- 신입생 00 명
- 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학년 0 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자필)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4. 주민등록등본 2부
5. 건강진단서(행정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제외) 2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은사스님 인적사항 [법명, 속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4, 만의가사 복사) 8매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필수사항)

전형방법

- 서류 접수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 불기2554(2010)년 3월 27일(토요일)
신입학 : 불기2554(2010)년 4월 1일(목요일)

입학시험

- 입학시험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 서류전형
신입학 : 불기2554(2010)년 4월 2일(금요일) 오전 8시
(시험과목 : 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초발심자경문)

- 합격자 발표 : 불기2554(2010)년 4월 2일(금요일) 오후 6시

- 입학식 : 불기2554(2010)년 4월 3일(토요일)

문의처

678-895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승가대학
전화 (055)934-3081, 3100

불기2554년 2월

해인사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해인사 주지 선각 · 해인사승가대학 학장 백강법진

